

방송콘텐츠진흥재단, 주식회사 픽업 1인미디어 사업 업무협약 체결

(재)방송콘텐츠진흥재단(이사장 정상모)은 인플루언서와 브랜드가 함께 만드는 브랜드드 콘텐츠 마켓플레이스 사업자인 주식회사 픽업(대표이사 문용희)과 6월 25일 방송콘텐츠진흥재단 회의실에서 ‘1인미디어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왼쪽부터 방송콘텐츠진흥재단 콘텐츠사업팀장 이효민, 운영관리팀장 황연숙, 상임이사 강선우, 픽업 대표 문용희, 이사 박소희)

협약식에는 (재)방송콘텐츠진흥재단 강선우 상임이사, (주)픽업 문용희 대표 등 방송콘텐츠진흥재단과 픽업 주요 관계자 등이 참여하였다.

이번 협약에 따라 (재)방송콘텐츠진흥재단과 (주)픽업은 1인미디어 사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다양한 사업과 연계하여 브랜드와 1인미디어(인플루언서)간의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약속했다. 이러한 파트너쉽 기반으로 방송콘텐츠진흥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MCN육성프로젝트

‘1인방송 제작스쿨’ 사업의 교육생에게 브랜드 콘텐츠 제작기회를 제공하여 브랜드와의 협업 기회를 지원하고, 교육운영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방송콘텐츠진흥재단 강선우 상임이사는 “이번 픽업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1인미디어 사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다양한 콘텐츠 제작기회를 제공하고 관련분야에 1인미디어 창작자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주식회사 픽업의 문용희 대표는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1인미디어 제작자들의 경우 성장을 위한 시간과 지원이 필요한데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방송콘텐츠진흥재단과 함께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재)방송콘텐츠진흥재단은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중 뉴미디어콘텐츠 지속성장과 관련분야 진입을 위해 1인 크리에이터 양성하는 MCN육성프로젝트 ‘1인방송제작스쿨’ 사업과 건전한 1인 방송 콘텐츠를 만들고, 공공성을 겸한 우수 콘텐츠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BCPF 대한민국 1인 방송대상’ 사업을 작년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다.

주식회사 픽업은 진정성 있는 인플루언서와 브랜드가 서로 매칭하여 웰메이드 콘텐츠를 제작, 구매 할 수 있는 브랜드-인플루언서 생태계 플랫폼으로 지난 11월 베타 서비스 런칭 후 현대자동차, 홈플러스 등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브랜드와 캠페인을 진행해오고 있고, 최근 벤처기업인증을 통해 기술력을 인증 받았다. 끝.